

국민생활 문제 해결 R&D 강화

과기부, 과학기술기본 시행계획 마련... 성과 창출 집중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 문제 해결 R&D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R&D 강화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2019년 1127억원)할 계획이다.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갈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전략적 R&D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또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 지원시스템을 표준화 및 통합한다.

◇지역주도형 R&D 체계 개편 진행 미래이슈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

과 거버넌스도 확충해 나간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가속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회 지원에 나선다.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방우정청, 예금사업 연도평가 2년 연속 '대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우체국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는 금자탑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우체국 평가에서는 동전주우체국(4급관서 대상), 부안우체국(5급관서 대상), 김제백구·부안계화우체국(5급이하 관서 장려상), 군산옥산우체국(별정국 우수상)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체국 예금사업 연도대상은 매년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9개 지방우정청, 총괄국, 소속국을 대상으로 예금수신고, 요구불예금 체크카드, 스마트금융 등 사업실적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전성무 청장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대상 수상을 이뤄 낸 전북지방우정청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체국을 사랑하고 격려해준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체국은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국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이 14일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애향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정진하길”

전북은행,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4일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임병천)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도내출신 고등학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이면서 행정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

해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1992년부터 올해까지 28년째 매해 5,000만원씩 총 14억원을 지원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도내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 기여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성철 부행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며,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0년 12월(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JB인문학강좌, 커리어 캠프, 진로코칭 캠프, 3D 프린터 지원 등 다양한 장학, 교육사업을 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서완산 골드클래스,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특별공급 신청 내달 2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서완산 골드클래스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

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단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감발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골드종합건설

(주)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345-1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24세대(전용면적 84형 18세대, 84형 6세대)이다.

특히,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대상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

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김진호 주무관(063-210-64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구글 '갑질' 제재... 영상삭제·계정종료금지

공정위, 구글 서비스 약관 심사 "8개 불공정 조항 시정하라"

회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제멋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온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구글은 이 중 8개 항목(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개(①~④)는 ‘시정 권고’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치다.

공정위는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구글의 행위(②)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여

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었다(①). 또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④).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한 지 60일 안에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60일이 지난 뒤에 고치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페이스북(①③⑥⑧⑩), 네이버(⑦), 카카오(②③⑥⑦⑨)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하거나 곧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전했다.

/뉴스시

인터넷진흥원, 액티브X 등 웹 이용불편 개선 추진

웹 표준 전환·웹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도한 액티브X 및 실행 파일 등 설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2019년도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액티브X는 윈도우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존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인터넷익스플로러 외 다른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KISA는 지난 2015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국내 3만여 개 소기업의 전자결제창 액티브X 제거,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은 1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500대 웹 사이트의 노플러그인 전환(액티브X 및 실행파일 제거 등)을 지원하는 웹 표준 전환, 웹 표준 기술 및 융합형 웹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 지원 사업 공모 접수는 다음 달 4일 마감된다.

/뉴스시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